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잠언 22:6

오영준 목사님

이 시대의 문제의 해답은 램넛트다. 시대 문제는 전도 실패다. 램넛트의 여정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다. 현장에는 램넛트 한 사람이 없어서 현장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멸망 시간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 실패다. 램넛트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언약 따라 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

1. 램넛트 - 마땅히 행할 길

초등 시절은 마지막 시간표다. 처음이면서 마지막 시간표다. 어른들이 대화할 수 있는 처음 시간표이면서 마지막 시간표다. 이때 무엇을 심어야 하겠는가? 램넛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제일 먼저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

① 다른 것 섞지 말고 100%, 순수하게 복음이다. 마음, 생각, 영혼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해야 한다. 이 복음, 그리스도만을 심어야 한다. 공부, 상관없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램넛트, 전도실패시대에 전도를 회복해야 할 램넛트다. 학업이 뛰어나면 좋지만 못 해도 상관없다. 성격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도 상관없다. 실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없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램넛트에게 다른 것 다 빼고, 진짜 엑기스만 전달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다. (행1:1 예수가 그리스도)

② 그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하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행1:3 하나님의 나라)

③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실, 현실이다.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기에 넉넉하다.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행1:8 오직 성령) 이 복음만 후대에게 남겨지게 하라.

(2)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기도할 수 있는 램넛트 되도록 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램넛트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복음 안에서 10년을 훈련받았는데도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 성도들은 복음은 희미했어도 기도할 줄은 알았다. 악을 쓰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은 확실했다. 아파도 굶어도 기도로 다 해결했다. 그 증거가 있었다. 복음은 희미한데 믿음은 확실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줘야 할 것, 뿌리내려야 할 것이 이것이다. 아이들이 안 믿는다. 말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세상 살릴 비밀이 다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다. 그 증거로, 기도하지 않는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력이 없다. 살아야 하나 병원으로 뛰어간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행을 간다. 게임을 한다. 실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능력이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

① 복음이 사실화,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뿐이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후대에게 진짜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한다.

②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시대를 움직일 방법, 보좌를 움직일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천국 열쇠가 기도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뭇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③ 램넛트에게 그 비밀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램넛트에게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세로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시기도 시간이 램넛트에게 가장 행복한 하루 일과가 되어야 한다. 정시웹툰, 정시드라마는 되는데 정시기도는 안 된다. 우리 램넛트들에게 이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야 무시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로 나타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비밀이 있어야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갈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다. 이 방법, 저 방법 써 보고 무너진 후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다. 문제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대면하게 된다. 이 비밀이 램넛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체질이다. 전도 체질이다. 초등 때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때 전도자의 삶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대학생 때 시작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3오늘 말고 전도자의 삶이다. 진짜 전도하는 삶이다. 현장에 가니까 우리 램넛트들이 기도수첩은 열심히 한다. 3오늘도 열심히 쓴다. 포럼도 SNS로 쉴 새 없이 날아다닌다. 전도의 역사는 없다. 일 년 내내 지나도 실제 전도는 거의 안 된다. 왜 그럴까. 체질이다. 진짜 만들어져야 한다. 언제만 가능한가? 초등학생 때다. 진짜 아이들 데리고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라. 처음에는 뻘컘해한다. 그러나 한두 명 영접 체험해보면 진짜 전도 잘 한다. 우리교회 제주도 캠프에 초등학생 네 명이 가서 문을 다 열었다. 어른들은 부끄러워한다. 아이들이 가서 다 영접시킨다. 매월 1회 하는 전교인캠프에 초등학생 40명이 참석한다. 전도 체질을 언제 만들어야 하는가? 초등학교 때다.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그 전도의 체질 속에서 램넛트들이 램넛트로서의 자부심이 생기고, 자근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긴다. 백 마디 말로 '시대 살릴 주역이다' 아무리 말해 보라. 당장 학교 성적 나오면, 선생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감은 푹푹 떨어진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램넛트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이 축복을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한다.

2. 부모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부모님이다.

(1) 버려야 할 것이 있다.

① 내 것이라는 착각이다. 우리 램넛트는 부모님의 것이 아니다.

② 다른 말로,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다. 부모님은 위임을 받은 자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여러분의 것을 각인시키는 만큼 램넛트는 틀린 길로 가게 된다.

③ 램넛트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누구처럼' 하는 이야기는 버려야 한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상 앞에 램넛트를 줄 세우지 마라. 세상 기준으로 램넛트를 평가할 수 없다. 램넛트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존재다. 램넛트의 길은 따로 있다. 세상에 줄 세워 버리면 램넛트의 길을 갈 수 없다. 빨리 버려라. 이제는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님 손에서 혼나면서 커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램넛트로 자라게 된다. 조부모님들은 오냐오냐한다. 아이들의 버릇을 망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된다. 조부모님들은 손주를 품에 안고 자지 마라. 부모님에게 돌려보내라. 조부모가 하나씩, 부모들은 요즘 사랑 대신 돈으로 해결한다. 이게 아이들에게 체질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이상한 아이들이 된다. 아이 낳은 엄마 아빠는 당연히 고생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편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빨리 버려야 한다.

(2)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는 방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라. 학원 한두 개 못 간다고 아이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세상 앞에 줄 세우고 세상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니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진짜 전도하는 아이들은 어떤가. 시끄러운 아이들이 전도를 훨씬 잘 한다.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잘 한다. 전도는 눈치 없는 사람이 진짜 잘 한다. ADHD를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진짜 전도자가 된다. 우리는 빠르게 반듯하게 말씀 듣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전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얌전히 앉아서 눈치 보는 아이들은 전도 못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어만 한다. 일단 나대는 아이들, 활동력 강한 사람들은 막 들어간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난다. 눈치 안 보고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계획은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후대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

② 이 복음이 후대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반드시 부모님이 초등 램넌트에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성경 이야기다.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꿈을 꾀다. 우리 램넌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성경구절 달달달달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것이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다. 함축된 복음은 교회에서 한다. 선생님들이 할 것이다. 부모님들은 뭘 해야 하는가? 풍성한 삶 속에 녹아져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③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와 포럼이다. 아이들과 꼭 집에서 예배하라. 예배는 반드시 드러라. 이 시간에 아이들과 포럼하라.

(3)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1:5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 후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달해야 한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전달하면 아이들은 어느 날 한계를 맞이한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한계를 겪게 된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선구자, 앞서가는 분들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은 많은 갈등, 고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을 램넌트와 예배 속에서 포럼한다고 생각해 보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던 이야기가 믿음이 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달하라. 갈등, 고민하면서 율법, 신비, 인본주의 다 쓰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변질된 채 전달받게 되어 버린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3오늘, 전도자의 삶의 응답,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전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3. 교사

교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램넌트들은 커서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초등 램넌트들은 결심하라.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 램넌트가 램넌트를 키워야 한다. 교사는 가장 축복된 자리다. 목사님보다 큰 응답이 교사에게 있다. 교사는 아이들을 1:1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착각을 버리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① 부모는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을 잘 안다고 하지만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비합리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램넌트와 갈등하게 된다.

② 그러나 교사는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이 아닌 사실적이 될 수 있다.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 반 담임선생님과 담당 교역자를 위해서 정

말 기도해야 한다. 1주일에 한 번 와서 30분 메시지를 듣는다. 그게 일주일 삶의 모든 것이 된다. 아이들의 세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문화가 있다. 기도해야 한다. 바른 신앙교육이 전달되어야 한다. 요즘 조부모, 편부모 가정이 많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교사가 부모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못 한다. 주일학교 교사는 가능하다. 이익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이다. 은혜로, 사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만한 중요한 일이다.

(2)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복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 분반공부하면서 4, 5명에게 복음 설명하는 것으로 역할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절대 안 듣는다.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언약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한다.

② 그 플랜 속에서 아이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③ 그리고 이 개인화, 체화된 것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와서 분반공부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성향, 성격, 체질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 그것을 일반화, 보편화시켜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장 중요한 발을 만드는 것이 주일학교의 역할이다.

① 우리 램넌트 한 명 한 명이 전부 말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짜 아이들이 말씀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학원 한두 개 손해 보더라도 말씀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락방, 미션 홈, 전문교회, 전도학교, 신학원 시스템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램넌트의 길을 갈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렸다 닫혔다 할 것이다. 그래도 꾸준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②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영적 서밋 되도록 돕는 것이다.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진, 현장 살릴 능력을 가진, 현장 살릴 비밀을 가진 램넌트로. 그 안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고 나의 미션을 찾는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아이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대를 보고 '재는 커서 뭐가 되겠어?' 한다. 그것은 성격, 성향, 성격을 보면서 직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 틀렸다. 램넌트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전도자다.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조금 더 못한 자리에 있다? 무슨 상관이 되겠는가? 성공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일 수 있겠는가? 남들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답을 주는 복음 전하는 인생이 가치없는 인생이겠는가? 램넌트의 인생은 세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 램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 교사는 결단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이 길을 걷는 중에 실패자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램넌트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스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앙의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전념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